

영어의 자음중복: 통시적 분석*

이 동 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영어철자의 특성 중 자음을 겹쳐 쓰는 자음중복의 문제는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영어의 철자법에서 중복자음의 사용을 관리하는 원리를 찾아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세영어 시대부터 자음을 겹쳐서 단모음을 표시하는 철자법이 도입되었으며 이 관습은 초기현대영어시대를 거쳐 18세기에 확립되었다. 어말과 형태소 경계에 나타나는 중복자음은 대부분 이 기능을 수행하며 단어 간의 중복자음은 어원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복이 불가능한 자음들과 <ck>, <tch> <dg>의 중복자음적인 성격은 모두 발달사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영어 중복자음에 관한 철자법에는 역사적, 음운론적, 문자배열적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 중 영어사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주제어 ■ 영어철자체계, 자음중복, 중복문자, 어원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dklee@knou.ac.kr

1 서론

영어의 철자는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어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철자를 보고 읽을 때 발음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넣어야 할 철자를 빠뜨리거나 필요 없는 철자를 넣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흔한 철자 실수 중의 하나는 자음의 중복에 관한 것이다. 철자법이 확립되기 전인 18세기까지 자음중복의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16세기 영어철자에 관한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일컬어지는 멀 캐스터(Mulcaster)의 *Elementarie*에서 제시된 8,000여 개의 추천 철자에는 *cokkish*, *cotage*, *generall*, *stomak*, *parcell* 등이 들어 있다(업워드와 데이빗슨(Upward and Davidson 2011: 296)).

자음중복 철자의 어려움은 여러 학자들의 관심사였다. 파올러(Fowler 1926: 575)는 *Britain/Brittany*, *inoculate/innocuous*, *intil/install*, *harass/embarrass* 등을 가려내기 힘든 예들로 언급하면서 문자의 중복이 영어에서 가장 흔한 철자 실수의 근원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홈즈와 응(Holmes and Ng 1983)은 교육받은 성인들도 가끔 자음중복에 관한 실수를 한다고 인정하였다. 롤링즈(Rollings 2004)의 정자법 음절(orthographic syllable) 개념의 도입은 음운론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상위 단계의 설명을 시도한 예이다.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commitee> *committee*, *<accomodation> *accommodation*, *<casette> *cassette*, *<Missisipi> *Mississippi* 등은 중복을 소홀히 하였고 *<dilligent> *diligent*, *<tommorrow> *tomorrow*는 필요

없이 자음을 중복시켰다. *<innaccuracy> inaccuracy, *<inocent> innocent와 같은 단어들도 자칫하면 잘못 쓰기 쉽다. 특히 영어의 자음은 하나로 쓰이든 겹쳐 쓰든 같은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철자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동일 자음 철자가 반복된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는 중복자음(doubled consonants), 중첩자음(geminate consonants), 이중자(doublet vs. singleton)로 다양하게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중복자음으로 통일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철자법의 중복자음 문자 사용을 관찰하는 규약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시작은 자음중복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ed, -ing 앞에서 어말의 자음을 중복시키는 규칙의 성격 규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음을 겹쳐 쓰는 관습이 어떤 변천과정을 통해 영어철자체계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다양한 통시적 각도에서 살펴 봄으로써 중복자음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어말 자음중복(Doubling the final consonant)

어말 자음의 중복은 영문법서나 영어교육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커밍즈(Cummings 1988: 161)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어미가 첨가될 때 마지막 자음의 중복이 일어나는 자음중복규칙을 언급하고 있다.

(1) Consonant doubling occurs before a suffix with an initial vowel letter if (a) there is a single base-final consonant before the boundary and (b) the consonant letter is preceded by a single vowel letter.

(1)은 예외가 거의 없는 규칙으로 동사변화 때 나타나는 자음 중복을 설명해 주고 있다.

(2) plan-planned-planning
drop-dropped-dropping
ship-shipped-shipping
hum-hummed-humming

이 규칙을 맹목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음의 발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일한 자음을 굳이 한 번 더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형의 단모음은 어미가 첨가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규칙을 따르지 않은 *planed (plan+ed), *dropped (drop+ed), *siting (sit+ing) 등은 기대와 달리 [pleined], [drouped], [saiting]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크고, 원형도 plane, drope, site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자음의 중복이 불확실하다면 중복 없이 단어를 발음해 보면 된다. 어미의 첨가로 기존 발음이 달라지면 중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 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와야 성립한다. 그 이유는 영어철자법의 원리가 밝혀준다. 영어에서 자음-모음-자

음으로 구성된 <CVC> 철자의 모음은 대개 단모음이지만 뒤에 모음이 추가되어 <CVCV(C)>가 되면 앞의 모음은 장모음이 된다. 이것은 ‘개음절(open syllable)의 모음은 길다’라는 원칙이 영어 철자법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 <CVC>의 폐음절인 단음절어에 모음이 붙으면 <CV-CV(C)>로 이음절어가 되고 첫음절이 개음절로 바뀌어 버린다. 폐음절과 개음절은 음절이 자음으로 마치느냐 모음으로 마치느냐에 의해 구분된다. 개음절은 장모음이 어울리는 위치여서 이를 다시 폐음절로 만들기 위해 자음을 추가시킨 것이 어말자음중복 규칙의 핵심이다.

어말 자음중복 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어미가 첨가될 때 바른 철자형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형용사의 비교 (big-bigger-biggest, hot-hotter-hottest, thin-thinner-thinnest)는 물론이고, 파생형을 만들 때(bag+age → baggage, sum+ary → summary, pot+ery → pottery, rob+er → robber)도 자음중복이 있어야 기본형의 단모음을 유지 시킬 수 있다.

자음중복규칙의 정체가 밝혀졌으므로 이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을 검토해 보자. 이 규칙은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지막 자음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1b)의 선행 모음이 한 글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두글자가 되면 대개 장모음이어서 자음중복의 단모음과 관련된 성격과 맞지 않아 명시된 것이다(*heating, *sleeping, *needed, *rained). 설령 <VV>가 단모음이라 할지라도 자음을 겹쳐 쓰면 무거운 철자

1) 중세영어시대에 2음절어의 개음절 위치에 있던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변화는 개음절장음화 (Open Syllable Lengthening)가 일어나 na-me ‘name’, no-se ‘nose’등의 첫 모음이 장모음화하였다.

<VVCC>가 나오게 된다(*sweating, *threadding, *footting, *bookking). 그러므로 발음보다 글자의 수가 자음중복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1a)의 단일 자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당연하다. 모음 뒤의 자음이 이미 두 개라면 *helpping, *shiffting, *formming, *jumppping처럼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사족이 된다. 어말의 자음이 두 개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첨가될 때 자음을 겹치지 않더라도 폐음절이 만들어진다(hel-ping, shif-ting).

중복을 시키는 경우가 선행 음절의 모음이 강세모음일 경우로 제한되는 이유도 간단하다.

- (3) admit - admitted - admitting
 occur - occurred - occurring
 préfér-preférrred-preférrring

일반적으로 비강세모음은 길게 발음하지 않아 entered, opened, visited, developed 등의 예와 같이 직전 모음이 무강세이면 어말 자음을 중복시키지 않더라도 장모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개음절의 강세모음만이 장음화의 대상이어서 비강세모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²⁾ 이음절 이상의 단어들은 이 원리에 맞게 중복 여부를 결정하면 되며(regrétttable, contróllable vs. prófitable, réputable), 파생으로 강세가 이동하면 중복할 필요가 없어진다(préférence, préférable (prefér), référence, referée

2) 영국영어에서는 강세의 조건에 예외들이 존재한다(worshipped, kidnapping, travelled, traveller, cancelled). 이는 뒤에서 다룬다.

(refér)).

영어는 유사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많아 특정한 표시가 있으면 구별이 쉬워진다. dinner/diner, bitter/biter, robber/rober, batting/bating ridding/riding, pinning/pining는 완전히 다른 단어들의 쌍이고 이들을 혼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자음중복이 해준다. 어미가 첨가되기 전 원형의 모음이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덤이다.³⁾

종합해 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첨가될 때 어말에서 자음을 겹쳐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미의 첨가로 음절구조가 달라져 장모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중복자음은 영어에서 선행모음이 단모음이라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원어민 철자 사용자들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음중복여부를 쉽게 결정한다. 예를 들어, nip이라는 가상단어의 동사변화형을 nipped, nipping이라고 바르게 예상할 것이다.

3 역사적 배경

1) 단모음 표시를 위한 자음중복

중복된 자음은 고대영어시대부터 영어의 철자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단, 고대영어는 철자 그대로 발음하던 시기였으므로 자음이 연속해 두 개 쓰이면 현대영어에는 없는 장자음이 발

3) 중세영어시대에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 때 자음을 중복시키는 경우(gretter, grettest 'greater, greatest')가 있어 late의 비교급으로 latter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영어에는 이 형과 다른 형용사들과의 유추로 생긴 later가 쌍을 이루고 있다.

생한다(middel ‘middle’, sellan ‘to sell’, spinnan ‘to spin’, aappel ‘apple’, cyssan ‘to kiss’). 따라서 stellan ‘to put’과 stelan ‘to steal’은 <ll>와 <l>의 자음의 길이에서 차별되는 다른 단어였다.⁴⁾

중세영어시대가 되면서 장자음의 변별력이 사라지자 중복자음은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노르만 필경사들은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해 모음 철자를 하나 더 쓰거나 어말에 묵자 <e>를 첨가하고, 단모음은 뒤따르는 자음의 중복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개발해 내었다. 후기 고대영어 이후 ld, rd, mb, nd를 제외한 자음군(중복자음 포함) 앞의 장모음이 단모음화하는 음운규칙도 이 철자법의 유행을 가속화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철자의 기본 원리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현대영어에서 hat/hate의 모음 차이는 어말의 <e>가, holy/holly의 차이는 자음중복이 표시해 준다. 중복자음 앞의 모음이 짧은 것은 역사가 오래된 표기법의 결과이다.

2) Orm

고대영어 시절에는 현대영어와 달리 모음의 장단을 표현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충거리였다. 고대영어는 상대적으로 음성적인 철자여서 철자대로 읽으면 되었지만 부족한 모음의 수로는 길이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대영어 저서들에서 장모음은 모음 위에 <̄> (macron)으로 표시하지만 이는 독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실제 문서에서는 구별의 어려움

4) 현대영어에서 장자음은 단일 음절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형태소 경계를 걸쳐서는 나타날 수 있다(whol-ly, un-necessary). 어경계까지 확대하면 night#time, fine# nail#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있었다.

1200년대에 Orm이라는 한 수도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해 내었다. 그는 교회 독서를 위한 설교집(homilies)인 *Ormmulum*을 편찬하면서 신자들이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 철자체계를 개혁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하여 단모음 뒤의 자음은 무조건 중복시켰고 이 작업을 *Ormmulum* 전체에 일관적으로 시행하였다. 기발한 생각이기는 하였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용감한 시도에 그쳤다. *after*는 *affterr*가 되고 *english*는 *ennglissh*로 되어 단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필경사들의 노동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Orm의 발상은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그 정신은 어말 자음중복규칙 (1)에서 보듯 현대영어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세 영어이후 철자규칙으로 장모음과 단모음을 표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자음중복은 영어의 철자체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최소주의(minimalism)

만일 Orm의 철자법이 현대영어에까지 통용되고 있었으면 *in*, *up*, *dog*, *cat*과 같은 단어들은 *inn*, *upp*, *dogg*, *catt*이 되었을 것이다. 실지로 중세영어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위의 변이형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고 사용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바이킹 침략이 일어난 10세기 이후 영어에는 스칸디나비아어들이 차용되기 시작하였는데 *get*, *bag*, *leg*, *fog*, *man*, *kid*, *cut*,

hit 등의 일상어들이 유입되어 영어의 철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 단어들의 형태는 모두 <CVC>이며 마지막 자음 글자는 하나이다.

17세기가 되면서 dog/dogg, rat/ratt 중 자음을 중복시키지 않은 형들이 우세하여 졌는데 이는 크리스탈(Crystal 2013: 54)이 말한 최소주의라는 철자원리가 영어에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겁게 보이는 철자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다. get, man, cut 등은 자음 중복을 시키지 않더라도(*gett, *mann, *cutt) 모음이 길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낮다.

현대영어는 단음절어에서 p, t, b, d, g, m, n로 마치는 단어들에 최소주의를 적용한다. 이들은 폐쇄음(stops)이거나 비음(nasals)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지로 대부분의 단어들에서 이들은 자음을 겹쳐쓰지 않는다.⁵⁾

(4) cap, pop, cup; bat, cut, put; cab, rib, web; bad, hid, god;
beg, mug, pig; jam, ham, gym; can, fun, won

(4)의 예외에 해당하는 mitt (<mitten), mutt (<muttonhead)는 단축형이고 putt는 put과의 구별을 위한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폐쇄음 목록에 <k>가 빠져있다는 점을 눈치채었겠지만 그것은 <CVk>라는 철자가 영어에 없기 때문이다. 어말 /k/음의 철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최소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마

5) Chubb, Watt, Hogg, Finn 등은 예외로 보이거나 철자의 관점에서 고유명사는 일반명사와 차별을 두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예들은 고의적으로 철자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지막 자음이 f, s, z, l, r일 경우는 자음 중복을 그대로 둔다.

- (5) cliff, stuff, sniff, scoff; kiss, fuss, boss, mess; buzz, fizz, jazz; bull, doll, tell, fill; burr, purr, whirr

음성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폐쇄음인 위의 그룹의 자음과 달리 마찰음(fricatives)들이다. 마찰음일 때 최소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표준 철자를 정할 때 인쇄공들이 이런 발음의 차이를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l, r은 유음(liquids)에 해당하는 자음이다. 파닉스 등에서 예외라고 다루는, 단모음 뒤의 f, s, z, l을 중복시키는 FSZL규칙(The FSZL Rule)은 이 현상을 피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ll>은 초기현대영어시기에는 현재보다 확장해서 finall, naturall, spounfull, vowell 등으로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도 사용된 바 있다. <rr>은 현대영어에서 <r>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carr > car, blurr > blur, whirr/whir).

단음절어의 자음중복에는 음성학적인 것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작용한다. has, if, of는 위의 기준으로는 *hass, *iff, *off가 되어야 하지만 단자음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이 단어들이 문법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어이며 강세가 약한 모음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간단한 철자로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on, in, up와 같은 전치사들도 모두 어말은 자음이 한 개만 있다. 만일 어느 정도의 강세가 있거나 내용어가 되면 자음 중복이 허용되어 of (전치사)/off (부사), in (전치사)/inn (명사)과 같이 대조를 이루는 쌍이 만들어 진다.⁶⁾

4) 중복이 되지 않는 자음들

철자 중복규칙이 있지만 모든 자음 철자가 중복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철자의 성격상 중복이 어려운 예들이 있고 이는 철자들이 발전해 온 통시적 배경에서 밝혀진다.

먼저 <h>는 고대영어시대까지 *crohha* ‘crock’, *hliehhan* ‘to laugh’처럼 중복자음을 볼 수 있었으나 중세 이후 모음 앞, 특히 어두에 주로 나타나는 문자로 변모하였다. 특히 <h>로 철자되던 이음 [ç], [x] 들이 <gh> 등의 다른 철자로 바뀌어 표기되면서 중복의 가능성이 점차 멀어졌다. <j>는 초기현대영어시대까지 <i>의 변이형에 불과하였고 배타적으로 자음으로만 쓰이게 된 것은 163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q>는 중세영어 이래로 뒤에 <u>를 동반한다는 규칙의 제한을 받고 있다. 17세기까지 <u>와 혼용되었던 <v>는 현재 *rev-revved-revving*를 제외하고는 어미변화에 의한 중복자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며 어중에서도 *savvy* 등의 일부 단어에서만 발견된다. 따라서 *fever/never*가 보여주듯 <v>는 자음의 중복으로 모음 장단의 차이를 표시할 수 없다. <w>는 <u> 또는 <v> 두 개가 합쳐진 형이므로 중복 자체가 태생적으로 어색하다. 어말의 <w>와 <y>는 사실상 모음문자이다. 전이음(*glide*) /w, j/를 나타내는 문자는 **crying*, **gnawwed*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중복될 수 없다. <x>는 고대영어에서부터 소수의 단어에만 볼 수 있는 철자였다(*eax* ‘ax’, *oxa* ‘ox’, *siex* ‘six’). 더구나 중복철자 <xx>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어미가 첨가되어도 중복이 일어

6) 자음중복 외에 목자 <e>를 사용하여 대조되는 단어가 나타나기도 한다(or (접속사)/ore (명사), by (전치사)/bye (감탄사)).

나지 않는다(mix-mixing *<mixxing>, box-boxing *<boxxing>, fax-faxed *<faxxed>). 영어철자체계에서 고유명사(Exxon, Kixx)를 빼고는 어말이든 어중이든 <xx>는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 <x>는 통상적인 발음이 두 개의 음 /ks/여서 중복되면 발음의 문제도 남는다.

이중자(digraph)인 <th>, <sh>, <ch>도 중복이 불가능하다. 11세기의 노르만 프랑스어를 쓰는 침략자들은 <h>에 구별부호(diachritic marks)의 역할을 부여해 중세영어 이후 <th>, <sh>, <ch> 철자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들은 발음 상으로는 한 개의 음 (/θ, ð/, /ʃ/, /tʃ/) 을 나타내지만 철자 자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중복이 되면 네 개의 자음이 연속되어 (<thth>, <shsh>, <chch>) 영어의 철자로 허용되지 않는다(밸린즈(Vallins 1965)).

5) <ck>, <tch>, <dg>

영어에는 하나의 음을 나타내지만 이중자보다 좀 더 복잡한 문자인 <ck>, <tch>, <dg(e)>가 존재한다. 먼저 <ck>의 역사를 살펴보자. 앵글로색슨의 고대영어에서부터 /k/ 음을 나타내는 기본 철자는 <c>여서(cēpan ‘keep’, cū ‘cow’, sac(c) ‘sack’), <k>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특히 중복된 형인 <kk>는 중세영어시대의 노르만 필경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개선의 대상이었다.⁷⁾ 밸린즈(Vallins 1965), 베네즈키(Venezky 1999) 등은 중세영어시대까지 수세기 동안 <c>, <cc>, <k>, <kk>이 공

7) <kk>는 trekking, dekkko, hokku 등의 외래어를 포함한 소수 단어에만 나타난다.

존하다 16세기의 인쇄공들이 두 문자가 공평하게 혼합된 형태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ck>가 점차 정식 철자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ME buket > bucket, ME cucu > cuckoo). 아래는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서 추적해 본 black의 변화로 16세기 이후에야 현재의 철자형이 나타났음이 확인된다.

- (6) Pan lai he þar so **blac** so pych. (*Sir Ferumbras*, c1380)
 In helle to dwelle with feendes **blake**. (*York Plays*, 1450)
 Thre elnis **blak** sating. (*Accts. Treasurer Scotl*, 1542)
 The wood hath a **black** color and is myche desyred of men for to make pypes. (*New Herball*, 1551)
 Thou canst not make one haire white or **blacke**. (King James Bible. Matt. v. 36, 1611)

<ck>가 이중자인가 중복자음인가 하는 문제는 사용 환경에서 바로 드러난다. 현대영어에서 이 철자는 주로 어말 강세 단모음 다음에 나타난다.

- (7) a. back, black, brick, neck, deck, click, clock, pack, check, sock, thick, truck, rock, stick; attack
 b. break, seek, look and soak; milk, tank, bark

단모음 뒤 어말의 /k/ 음을 표기하는 철자는 모두 <ck>로, 외래어이거나 단축된 형이 아닌 한(sac, trek, bloc, pic, spec)

단일 문자인 <c>나 <k>로 끝나는 예는 드물다. 반면 (7b)와 같이 앞에 모음 문자가 두 개이거나 자음군이 나타나는 경우는 <k>가 쓰이는데 이는 놀랍게도 어말자음중복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과 일치한다. <k>가 하나인 like, brake, joke, smoke 등은 장모음을 가진다. <ck>는 이중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모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중복자음 <kk>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smoke/smock, baking/backing과 같은 대조되는 쌍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음절어로 선행모음에 강세가 없는 경우는 중복이 필요없으므로 예상대로 <c>가 나타나게 된다(music, magic, picnic, traffic, tragic). 존슨(Johnson)의 사전(1755)에는 musick, magick, critick와 같은 철자를 허용하였으나 웹스터(Webster)가 중복자음의 원리에 맞게 지금의 철자를 확립하였다. 현대영어의 어형 변화 때 나타나는 panic-panicking-panicked, traffic-trafficking-trafficked, mimic-mimicked-mimicking의 <ck>는 ‘hard C’음을 보존하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로 약간 성격이 다르다. <c>를 그대로 두면 [s]로 소리나(*traffic[s]ed, *picnic[s]ing), 원형과 변화형의 발음이 달라지게 된다. barrack, buttock, derrick, hammock, haddock은 이 규칙의 예외에 속하는 데 베르그(Berg 2015)는 이것을 앞의 중복자음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maverick은 고유명사 Samuel A. Maverick에서 나온 형이다.

중세영어까지 <ch>의 중복형으로 <chch> (또는 단축된 <cch>)가 자주 사용되었다. 하지만 <chch>는 이중자를 다시 중복시킨 무거운 철자여서 대안으로 콕스틴이 선호한 <tch>가

등장하게 되었다(밸린즈(Vallins 1965)). OED에 나오는 watch (8a)와 catch (8b)의 자료는 중세영어와 초기현대영어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8) a. His twa men bad he..Ga to thair feris to rest and ly;
For he vald **vach** thar com to se. (*St. John's Cambr.*
vi. 87, 1380)

They haue a. C. eyes euer open to **watch** as the cat
for the mous. (*Marcourt Bk. Marchauntes*, 1547)

b. Pei **cacche** þe hede bytwene þese blades and, for þe
teeth ben scharpe, þei holdeþ that þei **caccheþ**.
(*Vegetius De Re Militari*, 1408)

He neuer walks abroad but in suspition, if a butchers
hook do but **catch** him by the sleue, he cries out, At
whose sute? (*T. Lodge Wits Miserie*, 1596)

현대영어에서 어말 강세 단모음 뒤의 /tʃ/의 철자 표기는 <tch>가 담당한다.

(9) a. match, catch, hatch, watch, fetch, pitch, switch,
scratch, stretch, Dutch, Scotch

b. couch, reach, touch, screech; branch, church, lunch

rich, such, much, which, spinach 등의 소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9)의 <tch>와 <ch>가 나타나는 환경을 비교해 보면

또 다시 어말 자음중복규칙 환경의 판박이이다. 모음 문자가 두 개거나 자음이 하나 더 있으면 <tch>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tch> 역시 <ch>의 중복자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g>는 /dʒ/를 표시하는 이중자로 앵글로-색슨 족의 고대영어에서는 <cg>로 사용되어 오다 중세영어시대 이후 <gg>와 경쟁의 시기를 거쳐 지금의 철자로 정해졌다(OE ecg > ME egg ‘edge’, OE brycg > ME brigg ‘bridge’). 이 문자도 캐스턴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브렌켈먼(Brengelman 1980: 358)). 아래의 OED에 나타난 bridge의 철자 변화에서도 <dg>는 16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10) Dis bachelers hadden a **bregge** Ypassed. (*Arthur & Merlin*, c1330)

Kyng Herry..hathe i founde for his folke a **brige** in Berkeschire. (*Some Acct. Domest. Archit*, 1458)

To make a **bruge** called Hugh Bruge. (*Inv. Ch. Goods Staffords*, 1552-3)

They account his head vpon the **bridge** (*Richard III* iii. ii. 67, 597)

<dg>는 뒤에 <e>를 동반한 형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g>가 어말에 쓰이면 Soft G인 /dʒ/음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orange, barge, usage에 묵자 <e>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dg> 다음에도 이 모음 철자는 필수적이다. 아래는 현대영어에 나타난 <dge>의 분포이다.

- (11) a. bridge, edge, dodge, hedge, wedge, fudge, ledge
 b. cage, rage, huge, stage, page, gauge; large, verge,
 range, lunge

위의 비교에서 드러나듯 <dg>는 단모음 뒤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중세영어형인 <gg>의 성격을 계승한 탓으로 생각된다. 역시 장모음 뒤와 다른 자음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프랑스 차용어인 judge는 <juge>로 도입되었으나 이 원리에 맞추어 <dg>를 채택하게 되었다. 참고로 refrigerator가 단축이 되어 일음절어가 되면 *frige가 아니라 fridge로 <dg>가 나온다는 점도 이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ck> <tch> <dg(e)>는 모두 같은 성격의 철자이다. 이들은 /k/, /tʃ/, /dʒ/ 음을 나타내는 철자가 앞의 모음이 단모음임을 표시할 때 사용되며 철자법의 표준화와 함께 영어철자 체계 속으로 녹아들어 왔다.

6) 프랑스차용어와 중복자음

지금까지는 주로 어말 자음을 중심으로 중복현상을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이음절 이상이면서 단일 형태소인 단어들 중 어중에 중복자음을 가지는 예들도 설명이 가능할까? dinner, sudden 등에서 <nn>, <dd>를 쓰는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세영어 이후 프랑스로부터 차용된 대부분의 차용어 철자는 영어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traffic, buffet, chiffon, chauffeur, scaffold 등은 원래부터 <ff>가 있었고 이들은 선행

모음이 단모음이어서 중복자음을 쓰는 원리와의도 맞다. embarrass (<Fr. embarrasser)도 이미 프랑스어에서 <rr>과 <ss>가 들어 있었다. 이전 프랑스어에서 자음을 겹쳐 쓰던 단어는 영어에 들어와서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5세기 중세영어에 들어 온 *bagage*에는 중복자음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단어들과의 유추에 의해 강세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첫 음절의 모음이 짧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치가 필요했다. 그 방법은 역시 자음중복이었고 현대영어의 철자인 *baggage*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래는 프랑스어에서는 단모음이었으나 유사한 과정을 거쳐 철자가 변경된 단어들의 예이다.

- (12) *channel* (<Fr. chanel), *bonnet* (<Fr. bonet), *cabbage* (<Fr. caboche), *ribbon* (<Fr. riban), *cotton* (<Fr. coton), *gallery* (<Fr. galerie), *quarrel* (<Fr. querele), *pudding* (<Fr. podyng<boudin), *sudden* (<Fr. sudein), *nigger* (<Fr. niger), *jolly* (<Fr. joly)

프랑스차용어에 강세의 이동에 의한 자음중복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억하면 철자를 정확히 쓸 수 있다. 이에 반해, *camel*, *damage*, *lemon*, *baron*, *forest*, *city*, *pity*, *metal* 등은 라틴/프랑스어 어원의 원 철자형을 따르고 있다. 이들도 초기현대영어까지 *barron*, *citty*, *mettle*처럼 중복된 자음을 쓰는 철자가 가능하기는 하였다.

후기 중세영어에 들어온 *cannon*은 프랑스어에서는 *canon*이었으나, 종교적인 용어인 라틴어 차용어 *canon*와 혼동될 수 있

었다. 이 단어는 단모음에 관한 영어의 철자법에 맞추어 지금의 철자로 바뀌게 된다. ‘대포’라는 의미로의 원래 어원이 이탈리아어 *canna* ‘a large tube’라는 점도 작용하였다. 친숙한 *coffee*에 <f>가 두 개인 이유는 16세기말 이탈리아어 *caffè*로부터의 차용어인 탓이고 *cafe*는 한참 후 들어온 프랑스어 차용어 *café*에 맞춘 철자이다.

7) 라틴어 차용어와 중복자음

문예부흥의 결과 16세기인 초기현대영어시대부터 고전어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중 라틴어는 학식체의 언어 (*language of learning*)로 큰 인기가 있었다. 철자법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여 라틴어에서 들어 온 단어는 기존의 철자가 존중되었다. *subtle*, *debt*, *indict*의 목자들은 모두 라틴어 어원을 참고해 추가된 자음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solid*는 앞 음절의 모음이 짧아 중복자음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sollid*가 되어야 하지만 단자음이 쓰이고 있다. 이 단어는 라틴어 *solidus*에서 유래한 단어로 후기 중세영어에 영어의 어휘가 되면서 원래의 철자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라틴어 *acidus*에서 나온 *acid*도 마찬가지 이다. 아래는 모두 라틴어 어원의 단어들로 <id>로 끝나면서 중간에 단일 자음이 나타나는 예이다.

(13) *acid*, *amid*, *cupid*, *rapid*, *rigid*, *solid*, *stupid*, *timid*, *valid*;
placid, *florid*, *vivid*

placid, florid, vivid를 관련어인 placent, floral, survive와 비교하면 파생에 의한 단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거나 -id가 영어의 파생어미로 인정받지는 못하므로 기존의 라틴어 철자를 반영한 경우로 분석해야 한다. 예외로 취급되는 pallid, horrid, torrid는 중복자음이 들어있는 라틴어 어원(pallidus ‘pale’, horridus ‘bristling’, torridus ‘parched’)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이런 예는 소수이므로 영어의 철자법에서는 어말 <id> 앞의 자음을 단일 자음으로 기억해 두면 편하다.

finish도 일반적인 중복자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어원이 라틴어 finire ‘to end’, finis ‘end’라는 것을 안다면 중간에 자음을 중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ish>로 끝나는 많은 단어들이 이런 식의 철자를 택하고 있다.

(14) punish, replenish, abolish, perish, astonish, banish, cherish,
finish, flourish, nourish, polish, radish, relish, vanish

mannish, piggish, Scottish와 같은 경우는 외견상 예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 형태소가 아니라 man+ish, pig+ish, Scot+ish처럼 파생접미사가 첨가되어 자음중복 규칙이 적용되었다. radish와 reddish는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쌍이다.

한 단어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철자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annual (<L. annus ‘year’) summit (<L. summus ‘highest’), mammal (<L. mammalia), inflammation (<L. inflammatio(n)), essence (<L. essentia), possible (<L. possibilis)

의 중복자음은 라틴어 어원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어원에 관한 지식은 라틴어 접두사가 첨가되는 파생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외우지 않고 중복자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파생어들을 형태소로 분리해 보는 것이다. command는 com ‘together’와 mand ‘order’의 결합이므로 <mm>이 나올 수밖에 없다. innocent가 in ‘not’+nocere ‘to hurt’라는 것을 알면 <nn> 철자를 실수하지 않게 된다. add, addition, adduce, address의 <dd>도 접두사 ad- ‘to’가 개입한 자음의 중복현상으로 기억하면 정확하다.⁸⁾ 좀 더 복잡한 경우인 accommodate는 두 군데에 중복자음이 들어있지만 ac ‘to’+com ‘together’+modate ‘manner’로 분석하고 보면 중복시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라틴 접사는 뒤의 첫 음과의 동화작용에 의해 이형태(allomorph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d-는 어근의 형태에 따라 ac-, af-, ag-, as-, ap-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중복자음을 만든다. 영어는 라틴접두사 첨가로 인해 아래와 같은 많은 중복자음이 생성된다.

- (15) ad-: account, adduce, affirm, affluence, assent, appoint,
arrest, attract, attend
con-: connect, commit, commotion, commemorate, collateral,
correspond
dis-: dissimilar, dissect, dissuade, dissolve, dissent, dissident
ob-: occur, occasion, occlude, offer, offend, oppress,
opponent

8) add는 ad+dere ‘to put’이 어원이다.

in-¹: innate, innovate, immigration

in-²: innocent, illegal, illiterate, immortal, immense,
irregular, irrational

sub-: suffix, suffer, succinct, succumb, suggest, summon

라틴접두사와 어간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자음의 중복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접사만 파악되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원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며 aberrant/abbreviate에서 와 <bb>로 구별된 이유는 ab+errant ‘stray’와 ab(<ad-)+brevate ‘short’라는 구성의 차이에서 밝혀진다. attach, attack, attitude, attorney 등은 파생어가 아니며 원래 <t> 철자가 하나였으나 attract, attend, attempt, attribute 등의 at(<ad-)>가 첨가된 형과의 유추에 의해 <tt>를 가지게 되었다.

4 중복자음 관련 규칙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음의 중복은 대부분 역사적인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발달사적인 입장으로만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1) 3글자 규칙(three-letter rule)

영어는 내용어(content/lexical words)를 철자 두 개로만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 단어가 두 글자로써는 부

족하니 적어도 세글자는 되어야 한다는 3글자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VC>로 된 내용어보다 <VCC>로 된 예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음과 자음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단어의 경우 마지막 자음을 중복시키면 이 원리에 맞게 된다. add, all, ass, egg, ebb, odd, err, ill는 ad, al, as, eg, eb, od, er, il 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발음은 같지만 in으로 쓰면 전치사와 혼동되므로 자음 중복을 시킨 명사 inn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규칙의 예외는 do, go, be 정도에 불과하다. ad(<advertisement), pa(<papa)는 축약형이고, ox, ax에서 <x>는 사실 /ks/라는 두 음을 나타낸다.

2) 형태음운규칙(morphophonemic rules)

영어의 철자규칙에서 중복자음은 선행모음의 장단을 구별하는 좋은 수단이다. sitting과 siting의 모음의 길이의 판단에는 <t>의 철자 수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영어에는 어형성에 의해 어간의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다.

- (16) sane ~ sanity
 crime ~ criminal
 holy ~ holiday
 wild ~ wilderness
 grate(ful) ~ gratitude
 pure ~ purity
 omen ~ ominous

이것은 3음절 단음화(Trisyllabic Shortening)라는 음운현상으로 어말에서 세 번째 음절을 짧게 만드는 유명한 규칙이다. 하지만 (16)의 예들은 단모음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자음중복을 하지 않는다(*sannity, *crimminal, *holliday, *grattitude, *purrity). 영어철자법의 원리대로라면 summary, robber처럼 접사첨가 후 자음중복이 일어나야 하나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자음중복이 아니더라도 음운론적 지식에 의해 단모음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규칙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물론 단어 사용자들이 crime/criminal, omen/ominous 등이 동일 어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는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아래의 단어들에 자음중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 (17) state ~ static
 mime ~ mimic
 gene ~ (eu)genic
 tone ~ tonic

형용사형성어미 -ic은 원래 장모음이었던 앞의 모음을 단모음으로 만든다.⁹⁾ 접미사 -ic 앞의 모음이 짧다는 음운론적 지식이 있으면 *stattic, *mimmic, *tonnic과 같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자음중복이 있는 attic, traffic은 어미의 첨가로 생긴 형들

9) Chomsky and Halle (1968: 180)는 <-ic>, <-id>, <-ish> 앞에서 단모음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 아니다. classic (<class), tannic (<tannin)은 파생이지만 어원에 애초부터 중복자음이 들어 있다.¹⁰⁾

3) 어말 <le> 앞 중복규칙

카니(Carney 1994: 113)는 18세기까지 어말 -le 앞의 자음중복 여부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 지식인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apple의 <pp>도 실수가 빈번한 사례에 들어간다. 현대영어는 성절음(syllabic) /l/ 앞의 자음이 자주 중복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 규칙이 정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철자를 가진 단어들이다.

- (18) -bbl-: bubble, hobble, rubble, pebble, wobble, squabble, dribble
- ddl-: addled, middle, huddle, puddle, fiddle, riddle
- ggl-: giggle, juggle, wiggle, goggle, smuggle, rattle
- ppl-: apple, cripple, nipple, topple
- ttl-: little, shuttle, rattle, settle, cattle
- ffl-: shuffle, baffle, muffle, waffle
- zzl-: hazzle, puzzle, dazzle, sizzle
- ckl-: nickle, knuckle, tackle, buckle, sickle, chuckle

잘 살펴보면 중복자음 앞의 모음은 예외 없이 단모음이고, 중복된 자음에는 우리가 중복자음으로 분석한 <ck>도 포함되

10) metallic (<metal+ic)은 예외이다.

어 있다. 여기서는 -le가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le> 앞에 단일 자음이 오면 그 자음과 한음절이 되어 선행 음절이 개음절이 되므로, 자음을 겹쳐 써야 폐음절이 만들어진 다(ap-ple, bub-ble, gig-gle). 이 철자법은 *<to-ple>, *<drible>, *<lit-le>, *<mu-ple>과 같은 틀린 철자를 막아준다. 이 규칙은 장모음이 앞에 오거나(Bible, table, trifle, idle, beetle), 다른 자음이 선행할 경우(crumble, simple, wrestle, gentle, jingle)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a(i)ble의 파생접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triple은 단모음이 오지만 중복이 안되는 순수한 예외이다.

4) 문자배열제약(graphotactics)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어의 자음중복은 형태론적, 음운론적, 어원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중 형태소 경계에서는 가장 규칙적으로 나타나 중복자음의 출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태, 음성학과 상관없이 특정한 문자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롤링스(Rollings 2004), 베르그(Berg 2015), 트라이먼과 볼랜드(Treiman and Boland 2017))가 나오고 있다. 문자배열은 문자의 순서와 배열을 포함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음절 이상의 어떤 단어가 단일 형태소인 경우 형태음운적 요인과 무관하게 단어를 끝마치는 글자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중복자음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w> 앞에서는 sorrow, pillow처럼 중복자음이 잦고, <-it> 앞은 edit, visit처럼 단자음이 흔하다는 주장이다. <-et>는 발음이 <-it>와 같지만 중복자음을 더 많이 허용한다.

- (19) <ow>: mellow, allow, hallow, pillow, billow, narrow,
follow, borrow, sorrow, yellow cf. widow, below
- <et>: bullet, buffet, ferret, millet, nugget, plummet,
puppet, skillet, sonnet, wallet cf. closet, comet,
planet
- <er>: butter, scatter, skitter, hammer, supper, pepper,
summer, glimmer cf. liter, leper
- <it>: edit, visit, credit, limit, merit, digit, vomit, profit,
orbit, habit, spirit, debit, posit cf. summit,
commit, rabbit

이런 분석의 문제는 실제 자료에서 중복자음의 분포를 선호도의 퍼센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규칙으로 내세우기는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위의 경향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지 말하기 힘들다.

5) 미국영어와 영국영어

굴절어미가 첨가되었을 때의 자음 중복은 매우 규칙적이거나 아래와 같은 소수 예외들은 존재한다.

- (20) kidnap: kidnaped or kidnapped
travel: traveled/traveler or travelled/traveller
cancel: canceled or cancelled
label: labeled or labelled
worship: worshiped or worshipped

snivel: sniveled or snivelled

이들은 어미 앞의 모음이 비강세이므로 어말자음중복 규칙에 의하면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 (20)의 두 가지 철자 중 뒤의 철자는 미국영어에서는 드물고 영국영어에서 볼 수 있는 철자법이다. 이 현상은 어말자음중복규칙 (1)의 선행음절 강세 조건이 영국영어에서만 일부 단어에서 해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cancellation*, *programmer*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미국영어 영국영어 공통으로 중복자음을 사용한다.

5 결론

영어의 철자는 이상한 점들이 많지만 같은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중복자음은 사용법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어에는 중복자음이 나타나는 정해진 원리가 있으며 이는 역사적 배경에 의해 실체가 드러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첨가될 때 어말 자음을 겹쳐 쓰는 규칙은 암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stopped*, *chatting*, *bigger*, *funny*에 원형에는 없는 자음이 하나 더 나타나는 이유는 그리하지 않으면 원래 발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음의 중복은 모음의 개수가 절대 부족한 영어 알파벳에서 장모음과 단모음을 가려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이에는 *Orm*을 비롯한 중세영어시대의 필경사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모음 뒤의 자음을 길게 써서 단모음을 나타내는 철자

법은 영어철자의 기본 원리의 하나이다. stuff, kiss, bull, tell, buzz 등의 중복자음은 이 원리를 지키고 있다.

중복에 관해 특이성을 보이는 자음들은 모두 발달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j>, <q>, <w>, <v>, <x>는 중복이 되지 않는 데 이들은 탄생과정에서부터 중복과 어울리지 않는 철자들이다. <th>, <sh>, <ch>의 이중자들은 무거운 철자를 기피하는 영어철자법에 의해 중복이 저지된다.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ck>, <tch>, <dg>도 중복자음의 성격을 지닌 철자라는 것이 철자의 발전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단모음 뒤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어 중간에 나오는 중복철자는 프랑스어와 라틴어 차용어의 도입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많은 예들이 설명된다. sudden, button, account, commit, innocent 등의 중복자음은 어원적인 지식이 있으면 자음이 두 개 쓰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영어의 철자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시적인 분석이 바탕이 되면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철자는 살아있는 과거의 기록이다. 철자에 관한 지식은 글쓰기뿐 아니라 읽기 등 모든 영어 능력에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이 영어철자 체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 논문 투 고 일: 2023.01.20
- 심 사 완 료 일: 2023.01.31
- 계 재 확 정 일: 2023.01.31

- Berg, K (2015) “Double consonants in English: graphemic, morphological, prosodic and etymological determinants,” *Reading and Writing* 29(3). 453–474
- Brengelman, H. (1980) “Orthoepists, Printers, and the Rationalization of English Spelling,”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Vol. 79, No. 3. 332-354.
- Carney, E. (1994) *A Survey of English Spelling*. London: Routledge.
- Cummings, W. (1988) *American English Spelling: An Informal Description*. Baltimore: JHU
- Crystal, D. (2013). *Spell It Out: The Singular Story of English spelling*. London: Profile Books.
- Cook, V. (2004). *The English Writing System*. London: Hodder Education.
- Fowler, H. (1926) *A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lford, J. (2012) *The Complete Guide to English Spelling Rules*. Coppel: Astoria.
- Fulk, D. (1996) “Consonant doubling and open syllable lengthening in the Ormulum,” *Anglia: Zeitschrift für Englische Philologie*. 114(4). 481-513.
- Holmes, V and Ng, E. (1983) “Word specific knowledge, word-recognition strategies, and spelling abilit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2. 230-257.

- Howard-Hil, H. (2006) "Early Modern Printers and the Standardization of English Spelling," *The Modern Language Review*. Vol. 101, No. 1. 16-29
- Johnston, F.R. (2001) "Spelling exceptions: Problems or possibilities," *The Reading Teacher*. 54. 372-378.
- Rollings, A. (2004). *The Spelling Patterns of English*. Munich: Lincom.
- Scragg, D. (1974). *A History of English Spelling*. Blackwell. New York: Barnes and Noble.
- Solati, A. (2013) "The Influence of English Language History on English Spelling Irregularity," *MJAL5*. 3, Iran. 199-207.
- Treiman, R. (1993). *Beginning to Sp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eiman, R. and K. Boland (2016) "Graphotactics and spelling: Evidence from consonant doubl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4-264.
- Upward C. and G. Davidson. (2011). *The History of English Spelling*. London: Blackwell.
- Vallins, G. (1965). *Spelling*. Tonbridge: Andre Deutsch.
- Venezky, R. (1965). *A Study of English Spelling-to-sound Correspondences on Historical Principles*. Stanfo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Venezky, R (1999) *The American Way of Spelling: The Structure and Origins of American English Orthography*. Guilford
- Yin L., R. Joshi, D. Li and S. Kim. 1920 "Decisions about consonant doubling among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graphotactic and phonological influences"
- (1983) "Ungrammatical Notes 2: Doubling Trouble and the Peccable British," *Linguistic Analysis* 12: 85-89



Abstract

Consonant Doubling in English: A Diachronic Study

Lee, Dongkook

Dept. of English
KNOU

Even adults sometimes have difficulty deciding when to double a consonan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honological, etymological and graphotactic factors which influence spellers' choice of single versus double consonants, among which historical account proves to be the most important. Toward the end of the twelfth century, thanks to Norman scribes, a convention developed of marking short vowels with doubled consonants. The use of double consonants increase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nd was established as a norm in English spelling. The present 'Doubling the final consonant rule' is a result of these historical development; without the doubled consonant the short vowel in *hopping* becomes the long vowel in *hoping*. In addition, the diachronic approach accounts for why some consonant letters cannot be doubled. <ck>, <tch> <dge> are actually doubled letters, which marks a short vowel. English printers preferred to keep the

original spellings of French and Latin loanwords, which explains the medial doubling of consonants. The series of principles which regulate the use of ‘double’ consonant letters in English spelling offers valuable insight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spelling changes can help us to have a broader view of the English spelling system.

| **Key Words** | English spelling system, Doubling of consonants, Doubled letters, Etymology